

순종의 흔적이 있는가? February 05

• 마가복음 7:9-13

모든 부모가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학대나 불의한 일에 자녀를 이용하는 부모에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공경에 쓰인 히브리어는 ‘카베드’(kabed)입니다. 이 말은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 삶에서 부모를 비중 있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경에도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명령하는 부모의 경우입니다.

한편, 신앙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평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 계명을 준수한다는 평계로 부모 공경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며 물질로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불신자여서 신앙생활과 부모 공경을 병행하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다 해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부모에 대한 의무 모두를 중시합니다.

나의 삶에 나타나는 순종의 흔적이 축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경제적 헌신의 흔적, 시간적 헌신의 흔적, 마음을 다하는 순종의 흔적들이 내 삶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갈 6:17). 예수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며 감내해야 했던 아픔을 가리킵니다. 부모님을 위해 흘린 ‘피, 땀, 눈물’의 흔적이 우리 삶에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순종의 흔적이 있습니까?

① 내 삶에서 부모님(공경)은 어느 정도의 비중입니까?

② 경제적·시간적으로 마음을 다하는 순종의 흔적이 있습니까?